

새로 나온 책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고운진 지음·홍가람 그림)=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40년 넘게 제주 교육 현장에 몸을 담은 작가가 7편의 단편 동화를 엮어 책으로 펴냈다. 표제작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은 치매로 아이처럼 변해버린 할머니를 통해 제주4·3의 아픔을 섬세하게 되새긴다. 책은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낸 동심을 선물한다. 한그루, 1만4000원.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 지음)=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를 국어 교사들이 청소년 독자 수준으로 쉽게 풀어냈다. 중·고등 학생들이 국어와 문학 수업에서 배우는 인물, 사건, 배경, 문제 등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을 알기 쉽게 해설했다. 한강 작품을 이미 읽은 독자들에게는 감상의 깊이를 더하고, 읽을 독자들에게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해냄에듀, 2만원.

▶채운다는 것(다다 아야노 지음·그림, 고향옥 옮김)=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변화와 시련조차 삶의 일부라며 위로하는 그림책. 작가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는 아프겠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기존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삶과 가능성이 열린다고 전한다. 채우고 비우고, 다시 채우며 풍성해지는 삶, 진정한 인생을 만나게하는 책이다. 파스텔하우스, 1만6800원.

▶괄호의 비밀(임화선 지음·노아 그림)=누군가와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처,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별 선생님의 비밀 출석부를 둘러싼 주인공 제하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책은 모두가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어린이작가정신, 1만3000원.

▶각자의 정원(이안리 지음)=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등단한 작가의 첫 장편소설. 자연의 개발이나 보호 같은 인간 중심의 시선을 벗어나, 작가는 아홉 살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연을 처음 감각하는 존재의 시선을 따라간다. 야생의 땅을 마주한 아이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문학동네, 1만6500원.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이 책!

『제주 섬·집·밥』



해녀음식에 담긴 기억으로 전해진 ‘제주의 맛’

“제주 본디 음식은 습습합니다. 대단스럽지 않아요. 자연의 성정대로 자란 식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것에는 바다의 맛이, 땅의 것에는 흙의 맛이 담겼으니 갖은 양념에 기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제주해녀요리·자연음식 연구가인 진여원씨가 제주 한식을 다른 예세이 ‘제주 섬·집·밥’을 펴냈다. 이 책에는 70여개의 제주 음식 레시피와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가 실렸다.

서귀포시 성산읍 하도리에서 태어난 저자는 해녀 집안 출신이다.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언니와 함께 열두 살부터 물질을 한 그였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라는 언니의 권유에 대학에 진학해 일본어를 공부했다. 그러던 중 제주 해녀와 일본 식생활개선회원의 음식교류회 인연을 계기로 해녀음식에 담긴 기억과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다시 제주 섬집으로 돌아온다.

3대째 해녀 집안으로 제주 어머니들의 밥상을 자연스레 봐왔던 그는 옛 문헌을 찾아 공부하고 전통 방식의 음식을 배우면서 제주 음식 연구를 쌓아갔다. 2016년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되면서 해녀 후손으로서 해녀음식 연구를 소명으로 삼아 해오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제주 가정식의 특징과 그 뿌리인 양념, 젓갈, 장아찌 등의 레시피가 담겼다. 전복내장젓, 멸치젓, 자리젓, 뽕소라젓, 풋마늘대장아찌, 달래장아찌, 무말랭이장아찌 등 제주의 다양한 찬들을 실었다. 또 성계국, 갈치호박국, 자리불회, 고기국수, 옥돔구이, 방떡 등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제주 구전 음식과 전갱잇국, 멸치국, 옥돔국, 홍해삼미역냉국, 뽕소라물회, 계죽 등 바다의 정체성을 담은 해녀음식도 다룬다.

사철 재료 고유의 맛이 깃든 계절밥상도 담겼다. 봄에는 톳밥·양태국, 여름에는 열무보리밥김치·

자리돔구이, 가을에는 반지기밥·얼갈이배추김치, 겨울에는 차조고구마·콩국 등을 실었다.

무엇보다 저자는 옛 문헌과 그와 주변에서 전해들은 제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에 둔다. 저자는 이같이 말한다. “저마다의 생활은 누구랄 것도 없이 빠듯했습니지만, 제주에는 밥상을 나누는 통 큰 전통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마당에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기가 다반사였는데, 누구든 배고프면 들어와 먹고 가라는 신호였지요. 어느 집 잔치가 있는 날은 동네 전체가 다같이 들쭉들쭉했던 풍경도 기억납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정을 쌓으며 일군 음식 문화가 제주 한식의 참모습입니다. 진짜 제주의 맛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이어져 왔던 거지요.”

책 말미에는 ‘맛의 방주’에 담긴 목록 중 제주의 전통 음식과 식재료 31가지에 관한 이야기도 실었다. 출판사 포북, 2만5000원.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음식은 이야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법입니다.”

- ‘여는 글’ 중 -

설문대할망·자청비… 신들의 이야기

박희순 ‘신나라만나락 춤추는 신화’

제주 아동문학가인 박희순 작가가 최근 제주신화 열세거리를 다룬 ‘신나라만나락 춤추는 신화’를 펴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제주신화 안내서다.

책 제목에서 ‘신나라만나락’은 신과 사람이 만나 함께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주 신화 중 대표적인 열세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제주를 만든 설문대할망부터 서천꽃밭꽃씨로 아기를 점지하는 삼승할망, 농사와 사랑의 신 자청비, 자신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감은장아기, 부역을 지키는 조왕할망과 문을 지키는 녹디생이, 재물과 복을 나눠주는 고광할망 등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는 이야기 위주로 ‘본풀이’를 설명하고, 이 신화들 속에 담긴 의미와 상징도 짚는다. “제주 신화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며 삶의 원칙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라고 전했다. 그림 신기영, 한그루, 1만5000원.

어머니의 일상이 주는 위로들

변종태 시집 ‘일간 어머니 정기 구독’

“느 콧구멍 나 콧구멍 우리 콧구멍 (너를 품고 나를 품고 우리를 품고 살다보면 / 살다보면 살아진다 좋은 날 실거여(살다 보면 살게 될거야 좋은 날 있을거야)”(시 ‘콧다’에서)

제주 변종태 시인이 여섯번째 시집 ‘일간 어머니 정기 구독’을 냈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61편의 시가 실렸다.

“세상 모든 어머니는 시인이다”는 시인의 말처럼 그에게 어머니는 시를 쓰게 하는 존재다. 날마다 어머니의 일상을 읽었다는 그는 “아흔 넘은 어머니의 일과가 시를 만든다”며 “오래된 문장일수록 감칠맛이 난다”고 했다. 세상에 지칠때 마다 그를 두 팔 벌려안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텃밭의 식물로부터 받은 위로를 시적 언어로 표현했다.

해설을 쓴 임재정 시인은 “그에게 시를 쓰는 일은 어머니와 식물들의 내·외를 오가는 순환이자 고단의 삶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파란, 1만2000원.



시들지 않는 절절한 사랑 별곡

한문용 시집 ‘색바람, 그 초롱한 향기’

“임의 따스한 가슴 안에 / 늘 머물고 싶은 그리움 / 그 곳에 내 양지넋이 있는 줄 / 이제야 알았습니다 / 바닷길 모래밭에 일던 / 하늬 그치면 / 살가운 몸짓으로 날아든 색바람이 / 뽀송한 얼굴에 잔잔히 일렁이고 있다는 걸 / 이제 알았습니다”

제주 한문용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색바람, 그 초롱한 향기’를 펴냈다. 총 7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71편의 시가 담겼다. 다양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한 시들이 실렸다. 시인도 “늦깎이 사랑노래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4·3의 아픔과 잠재된 생의 명상도 표현했다.

시인에게 있어 사랑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매개이다. 김창호 시인은 해설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은 시인에게 햇살과 같고 서풍이 그치고 색바람이 불 때면 그 바람 곁에 임의 얼굴이 일렁인다고 했다”며 “이렇듯 절절한 사랑이 시들해진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기에 시인은 자문하듯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롬, 1만2000원. 박소정기자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여름방학 특선

한·중·일 크루즈 여행

전객실 발코니 프리미엄

ADORA MAGICCITY CRUISE(아도라 매직시티)
(13.5만톤 탑승 | 총 승객수 5,236명 | 2024년 1월 첫 운항 | 총 층수 16층)

선상 생활과 기항지 관광에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1억원 국외 여행자보험가입

7박8일 **250만원**

출발: 제주 강정항 서귀포
도착: 상해(상해공항)→제주(제주공항)
※ 상해 제주항공로 포함

7월 25일 **단 하루**
▶ 7월 12일 까지 모객 중

포함사항
크루즈 경비(크루즈내 식사 및 부대시설 비용), 기항지 비용, 크루즈 항구세, 여행자 보험, 전 일정 식사, 제주시→강정항 셔틀버스 제공

불포함사항
여권 및 발급 비용, 일본항 입항세: 1,000엔, 선상팁: 130(홍콩달러)x8일=1040(홍콩달러) 환화환산: 약 180,000원, 기타 개인비용 및 선내 유료 비용

전객실 발코니 딜럭스 이상

크루즈 제주닷컴 Tel. 064-748-7387 H-P 010-9690-7387